

불자 세상보기

경복궁 야간 개장, 어둠이 삼킨 시민의식



서등석
민중불교동지모임 대표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로 세운 이성계는 왕으로 즉위하면서, 정도전이 작성한 교서를 발표하였다. '하늘이 백성을 낳고 임금을 세운 것은 임금으로 하여금 백성을 길러 서로 살게 하고, 백성을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군도(君道)에는 덕실이 있고 인심에는 복종과 배반함이 있으니 천명(天命)이 떠나고 머물러 있음은 여기에 달려 있다. 이것은 변함없는 이치이다.'

유교의 통치이념은 새로운 수도건설에도 반영되었다. 남쪽을 바라보는 정궁, 경복궁의 앞쪽에는 각종 관청(六曹)이 들어섰고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세웠다. 도성을 드나드는 각 대문 역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따랐다. 경복궁이라 지은 이도 삼봉이었다. '군자 만년 큰 복을 누리리라'는 바람을 담고 있었다. 맹자가 이르신 '어진 정치'의 중심에 경복궁을 지었지만, 글썽 삼봉은 미처 그 뜻을 펴지 못한 채 피바람에 희생된다. 경복궁은 이성계가 들어가 산 지 채 3년도 못 가서 그의 아들들 간에 벌어지는 '골육상쟁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공간이 된다. 이른바, '왕자의 난'이 그것이다. 삼봉도 그때 참살 당했다. 경복궁의 피비린내는 그 뒤에도 이어졌다. 단종을 강제로 몰라나게 하고 왕이 된 수양대군은 자신을 반대하는 성삼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을 처단하고, 이어 이들과 관련되었거나 관련자로 의심받은 자 등 800여 명을 죽였다. 피로 얼룩진 조선의 정궁은 조선 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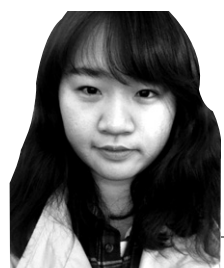
518년만에 일본 식민통치의 중앙관청인 조선총독부가 들어서는 참상도 맞았다. 한국 역사의 500년의 질곡이 고스란히 담긴 유서 깊은 곳이다. 정부가 이런 경복궁을 야간 개장했다. 연중 단 며칠만 허용되는 귀중한 행운을 잡기 위해 인파가 한번에 대거 몰리면서 초반 관람인원을 제한해야할 정도로 고궁 야간개장은 이제 서울 시민에게 빼놓을 수 없는 문화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이에 야간개장 기간을 연장하자는 여론도 높고 문화재청 역시 연장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복궁을 일시적이지만 밤에도 개방하여 많은 인파가 몰렸다.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진 고궁을 감상하려는 인파를 타할 바 아니겠지만, 경복궁 마당에 어린 역사를 알면 그 마당에서 함부로 웃고 떠들지 못할 터이다. 게다가 자리를 깔고 음주를 즐긴다는 생각은 더더욱 못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 본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시민의식은 자취를 감췄다. 경복

궁으로 향하는 서울 세종로 광화문 주변에는 각종 군것질 거리에서 술까지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관람객들이 지나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음식을 조리하는데 액화석유가스(LPG) 기구를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시 문화재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일회용 그릇이나 쓰레기들이 문화재 주변을 더럽히고 있다. 화엄경에 이르길,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슬기로운 사람이 배우면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은 자가 배우면 윤희를 이룬다. 이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적게 배운 탓이니, 모를지기 많은 배워 싫증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고궁의 밤풍경에 빠져 그곳에 서린 선인들을 잊지 않으려면 많이 배우는데 싫증 내지 말아야 할 일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 역시도 경복궁의 야간개장 연장을 고심하기 앞서 문화재 보존과 관람객들의 안전대책을 먼저 고심해야할 부분이다.

발언대
'미국의 참여 불교' 강의를 듣고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불교계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인파워먼트 프로젝트(GEP) 과정을 개설했다. 프로젝트 참가자 30여 명은 11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불교문화와 세계 이슈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된다. 5월 25일 첫 날에는 박포리 부교수(美 아리조나 주립대)가 '미국의 참여불교'를 주제로 강연했다. 참가자들의 소감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머리로 아는 불교 지양...직접 수행할 것”



서혜인
24·성신여대 국문과

무교였던 나는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문학작품에 나오는 사찰에 대한 표현과 불교적인 내용이 담긴 시를 좋아하게 됐다. 그러던 중 혜인 스님 트위터에서 글로벌 인파워먼트 프로젝트(GEP) 홍보를 보고, 2011년 5월 GEP 2기 과정에 참여했다. GEP 2기 과정을 수료한 나는 2013년 1월에 인도 바이샬리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석하는 기회를 얻게 됐고, 그곳에서 통역 및 자원봉사를 했다. 이때 많은 비구니 스님과 세계 각국의 스님을 만나면서 더욱 불교에 관심을 가졌고, 이번에 열린 GEP프로젝트에 또 참가하게 됐다. 서양에서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예전까지는 몰랐으나, 박포리 교

수가 서양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 재밌게 설명해줬다. 동양인으로서 서양에서 불교를 외래문화로 신기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을 배우게 되니 신기했고, 우리나라 불교와 비교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수행해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서양에서는 재가불교가 성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서양인들이 명상과 수행을 시작으로 불교를 찾게 된다고 하는데, 나도 불교를 머리로 알기보다 직접 수행을 해보아겠다 생각했다. 이밖에 대만의 한 비구니 스님이 참실한 단체인 자제공덕회가 세계 속 대만불교, 대만인들의 파워를 상징하는 단체로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많이 남았다. 불교와 영어공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앞으로 흥미진진한 주제들을 배우게 되서 기대가 된다. 조은수 교수(서울대 철학과)님의 '글로벌 이슈와 불교(전쟁과 평화)', 김애주 교수(동국대 영문과)의 '서구 속의 불교와 한국불교의 리더십(서구의 불교 전파에 대한 고찰과 한국불교 젊은이를 위한 전략)'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세계 불교 흐름 배우는 좋은 기회”



종민 스님
26·동국대 불교학과

2011년 9월에 출가한 나는 영108회원이었던 시절,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인파워먼트 프로젝트(GEP)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GEP과정의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나로서는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기에 호기심을 갖게 돼 과정을 등록했다. 5월 25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박포리 부교수(미국 아리조나 주립대)가 '미국의 참여불교'를 주제로 첫 강연을 진행했다. 강의는 미국불교의 특징과 수행, 생생한 미국 불교이야기가 주 내용이었다. 수업을 통해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계의 불교 흐름의 일면을 배울 수 있었다. 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출가해 한국불교가 전부인줄 알았지만, 박포리 교수의 강연을 통해 불교는 어떤 흐름을 갖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등 불교의 추세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정보 습득차원에서 좋은 강연이었지만 나중에 더 성장해서 한국 불교계 내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불교를 이끌어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현재 한국불교는 승가위주의 불교다. 조심스레 추측하건대 미래에는 재가자가 주축이 돼 불교를 이끌고 가지 않을 게 생각한다. 이유는 승단위주의 불교계라 하면, 스님들이 이 불교계를 하나하나 다 이끌어내야 한다는 소린데 실질적으로 승단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강의를 통해 요즘의 불자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했으면 하는지, 강력한 흐름 등을 엿볼 수 있었으며, 미래비전과 한국불교의 발전방향을 생각할 수 있어 유익했다.

社說

불교 근대 문헌 영역사업 환영

근대는 현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한국불교 역시 근대는 현재의 정체성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이 시기에 대한 조명과 연구는 미흡하다.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조계종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5월 28일 공포된 규정에 따르면 영역 편찬위는 총무원장 직속 기관으로 교육원이 업무를 담당하며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 문헌의 영역과 번역 대상 문헌 조사, 번역 출판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도 함께 참여해 전문적인 번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이번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다. 근대 불교문화 영역 대상은 효봉 만암 경허 만해 스님 등의 법어집과 저서 등을 중심

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6월 초 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6월 안에 영역화 편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사실 서구인들이 달라이 라마, 티베트 스님에 열광하는 것은 그들의 수행법이 철저히 영역화돼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국불교가 일본, 티베트의 불교보다 알려지지 못한 것은 이 같은 노력의 부재에 기인한다. 실제 지난해 영역화 전 세계 대학도서관과 공공기관에 배포된 한국불교의 '전통사상총서'는 미국 유명 불교전문지가 선정된 '올해의 불교 도서'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제대로 된 번역 서적이 있다면 한국불교를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영역화 사업 역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 학자들의 한국불교 기초 연구 자료 제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한국불교 해외 교육 불사 선포장 된다

네팔, 아프리카,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가에 한국불교계의 교육기관 건립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가난한 이들이 돈과 빵 등 구조물품을 직접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 국가의 동량이 될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데 우리 불교계가 인식을 함께 하는 것 같다. 이중 최근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를 건립해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팔을 걷어 부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척박한 불모지인 아프리카 대륙에는 인간이 최소한 누려야 할 기본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교육시설은 꿈도 못꿈다. 그래서 이들이 공부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학교 건립이 절실하다. 특히 식량난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현실에서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아프리카를 비

롯한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의 전수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아름다운동행이 건립하는 '탄자니아 농업학교'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전수하는 새마을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동행은 2012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실시한 민간단체사업발굴 지원에 선정돼 아프리카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구촌공생회는 지난 4월 30일 케냐서 올마피테트 만해 초등학교를 기공했으며, 108순례기도회 회주 선목혜자 스님도 네팔에 학교를 건립해 현지 국민들에게 많은 학습기회를 받기도 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고기를 직접 잡아야 하는 것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교육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임에는 틀림이 없다. 앞으로 한국 불교계의 활발한 해외 교육 불사 프로젝트를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 주 전 남 지 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영통사
● 창건주 : 무 심 (김영욱)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592-16호 2층
위 사찰과 위 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불태삼 미륵암
● 법 명 : 금 강 (백순례)
● 주 소 : 서울 은평구 응암2동 397-19번지 2층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귀중

탈 종 공 고
● 직 위 : 이사·총회위원
● 사찰명 : 성불암
● 법 명 : 청 호 (김영호)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155-1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7일
(사)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www.yangjikut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